

한국어 동사와 대격에 관한 연구* **

이 종근
(목포대학교)

Lee, Jong Kun. 2006. Korean Verbs and Accusative Cas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4(1), 223-242. The present study aims to account for case alternations between locative/dative case and accusative case. As is well-known, case alternations between locative/dative case and accusative case are not always possible. Previous approaches to case alternations between locative case and accusative case have tried to account for these syntactic phenomena based on the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of a verb and its co-argument noun phrase(s). The present work argues that basically case alternation between locative/dative case and accusative case can occur when a verb is syntactically and/or semantically ambiguous or when the lexical case such as dative is optional.

Key words: case, case alternation, locative, accusative case, dative.

1. 서론

한국어 동사와 대격의 면허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대격과 처소격이 한 문장 안에서 동일한 명사구에 나타나 다음 예문에서처럼 소위 격교체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 (1) a. 남의 사생활에/을 간섭하면 안 된다.
- b. 어른들 앞에서 행동거지에/를 주의해야 한다.
- c. 그는 학교에/를 다닌다.

위 문장에서 명사구 '사생활'은 같은 동사 '간섭하다'와 결합하여 '-에/을'

* 본 논문은 목포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필자는 여러 가지 소중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심사자(들)의 논평은 본 논문의 논지를 분명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교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처소격 '-에'는 Kim(1990), 김미령(2004) 등이 이미 지적했듯이 '-에'와 결합하는 명사구의 의미 자질이 [+HUMAN]인 경우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격 '-에게/께'로 교체된다.

- (2) a. 부모님의 말씀에/부모님께 순종해라.
 b.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의견에/그녀에게 찬성했다.

(김미령, 2004, p. 170)

이런 이유로 Kim(1990) 등은 이 두 격 표지를 기본적으로 같은 격 표지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를 따라 처소격 '-에'와 여격 '-에게/께'를 특별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같은 격 표지로 다루도록 한다.

한국어 동사 구문의 '-에/를' 격교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에/을' 교체가 모든 명사구에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 문장을 보자.

- (3) a. 그 아이는 대포 소리에/*를 놀라 기절했다.
 b. 달이 산마루에/*를 걸려 있다.
 c. 웅덩이에/*를 빗물이 고여 있다.¹⁾

우리는 여기서 동사에 따라서 '-에/를' 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처소격 '-에' 또는 여격 '-에게(께)'를 허용하는 동사들 중에서 어떤 동사들이 대격 '-을'과 격교체를 허용하고 어떤 동사들이 대격과 격교체를 허용하지 않는지를 밝히고, 동시에 대격 면허 능력이 있는 동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1) 위 (1)과 (3)의 예문들은 모두 홍재성(1997) 외 9인의 공저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에 실려 있는 예문들을 발췌한 것들이다.

2. ‘-에/를’ 격교체에 대한 선행 연구와 그 문제점

2.1. ‘-에/를’ 격교체가 가능한 동사의 분류

격교체 현상을 다루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동사를 유형별로 나누려고 시도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에/를’ 격교체와 관련해 우형식(1996)과 김미령(2004)은 ‘-에/를’ 격교체가 가능한 경우로 다음 3종류의 동사 구문을 제시하고 있다.²⁾

- (4) a. 철수가 학교에/를 간다.
 b. 그는 매주 산에/을 다닌다.
 c. 그녀는 봉사 단체에/를 가입했다.
 d. 그는 친구 결혼식에/을 참석했다.
- (5) a. 우리는 모두 그의 의견에/을 찬성한다.
 b. 김 일병은 상부의 명령에/을 거역했다.
 c. 환절기에는 항상 감기에/를 주의해야 한다.
- (6) a. 우리 집은 바다에/를 접해 있다.
 b. 그는 이번 면허 시험에/을 떨어졌다.

우형식(1996)은 (4)의 동사 구문을 도달성 이동 동사 구문으로 명명하고, (5)의 구문들은 태도 동사 구문으로, 그리고 (6)의 동사 구문들은 결과-상황 동사 구문으로 명명하였다.³⁾

그러면 위의 세 가지 동사 구문 외에 대격 ‘-을’과 격교체를 허용하는 다른 동사 구문은 없을까? 필자가 홍재성 외 9인 공저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을 검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일군의 동사들이 ‘-에게(께)/를’ 교체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각 예문의 문법성 판단은 인용된 논문에 있는 그대로이며 필자의 문법성 판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6b)의 경우 ‘시험을 떨어졌다’는 필자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들린다. 본고는 화자의 문법성 판단의 차이는 개인방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추후 이점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한다.

3) 동사 구문의 분류와 관련하여 우형식(1996)은 ‘결과-상황 동사’를 태도 동사의 하위 부류로 설정하고 있으나 김미령(2004)은 ‘결과-상황 동사’를 ‘태도 동사’와 대등한 부류로 설정하고 있다.

- (7) a. 그는 상관한테 육을 먹으면 하급자에게/를 못살게 군다.
 b. 선생님의 지시대로 반장이 지각한 아이들에게/을 청소를 시켰다.
 c. 부모님께/을 육을 먹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 예문에 나타나는 ‘-에게(께)/를’ 교체는 김미령(2004)의 연구나 우형식(1996)에서는 예시하지 않은 부류의 동사들인데 모두 사역 동사 구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예문들에 나타나는 격교체는 ‘-에/를’ 교체가 아니고 ‘-에게(께)/를’ 교체이다. 하지만 처소격 ‘-에’와 여격 ‘-에게(께)’는 김미령 등도 기본적으로 같은 격으로 보고 있으므로 크게 보아서는 ‘에/를’ 격교체로 분류할 수도 있다.

더욱이 다음 예문은 사역 동사 구문이면서 ‘에게(께)/를’ 교체가 아닌 ‘-에/를’ 격교체를 보여주는 동사 구문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8) 폐수를 무단방출한 그 회사 사장은 자신을 괴롭힌 그 시민단체에/를 한 번 꼴탕(을) 먹이려고 했다.

사역 동사 구문은 스페인어나 불어 등 로망스어(Romance languages)에서도 재귀대명사 구문이나 수동문 등에서 통사적으로 특이한 성질을 보여준다. Rosen(1989)은 로망스어 사역 동사 구문의 특이한 통사적 행동을 설명하면서 논항구조합병(argument structure merger) 이론을 제안한 바 있다.

다음 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부류의 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에/를’ 격교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어떠한 설명을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한다.

2.2. ‘-에/를’ 격교체에 대한 선행 연구

2.2.1. 이동 동사 구문에서의 격교체

김미령(2004)은 한국어에서 ‘-에/를’ 격교체의 가능성 여부는 동사 앞에 나타나는 명사구의 의미적 특성뿐만 아니라 동사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그의 이동 동사 구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 (9) a. 철수가 학교에/를 간다.
b. 그녀는 오늘 부산에/을 갔다.
- (10) a. 그는 내일 수련회에/를 간다.
b. 우리는 어제 시사회에/를 갔었다.
- (11) a. 우리 둘은 이 부분에/*을 가서는 항상 의견이 맞지 않는다.
b. 그는 마지막에/*을 가서는 이 일을 포기했다.
- (12) a. 그녀는 도서관 앞에/*을 가서 그를 기다렸다.
b. 그는 벤치 위에/*를 가서 앉았다.
- (13) a. 그는 오늘 밤 그녀와 영화구경*에/을 간다.
b. 그는 매주 등산*에/을 간다.

(김미령, 2004, p. 165)

김미령(2004)에 따르면 (9)는 실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처소를 나타내고, (10)은 집회나 모임을 의미하는 대상화된 처소를 나타낸다. '-에/를'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대상성과 처소성을 동시에 가질 때라는 것이 김미령의 주장이다. 그런데 (11)에서처럼 대격 '-을'로의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김미령(2004, p. 165)은 "... 명사가 처소성을 갖더라도 그 의미가 매우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처소의 의미를 가질 때는 처소의 성격이 강해져 '-를'로의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3)과 같은 구문에 대해서 김미령은 "... 명사에 목적(행위)의 의미만 있고 처소적 의미가 거의 없으면 '-에'로의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일찍이 Kim(1990, p. 77)에서는 대격을 면허하지 못하는 동사의 예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 (14) a. 유미에게 돈이 생겼다.
b. 토마토에 벌레가 많이 낀다.
c. 부잣집에 도둑이 잘 든다.
d. 이 형겅에 물이 안 스며든다.

위 예문에 나오는 동사들은 모두 이항술어(two-place predicate)인데 동사의 첫 번째 논항이 모두 구체적인 처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처소의 의미가 강한 이들 논항은 모두 처소격을 취하며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대격과의 격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 (15) a. 유미에게/*를 돈이 생겼다.
 b. 토마토에/*를 벌레가 많이 낀다.
 c. 부잣집에/*을 도둑이 잘 든다.
 d. 이 형집에/*을 물이 안 스며든다.⁴⁾⁵⁾

구체적 처소의 경우 ‘-에/를’ 격교체에 제약이 있다는 주장은 이미 한송화(2000)에 의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필자는 이동 동사 구문에서의 격교체와 관련하여 김미령(2004)의 주장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그 문제점이란 처소성과 대상성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하는 것인데 그 구분은 쉽지 않다고 본다. 위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대상성과 처소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명사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미령(2004, p. 169)은 “이동 동사 구문에서 ‘-에’는 처소 본연의 의미로서 도달점 또는 지향점을 나타내지만, 태도 동사의 ‘-에’는 ‘-에 대해서’라는 ‘대상’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에’가 붙은 명사구도 대상성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의 처소성과 대상성의 구분은 더욱 더 모호해 보인다.

2.2.2. 태도 동사 구문에서의 격교체

우형식(1996) 등은 어떤 사태에 대한 내면적 태도를 보이면서 ‘-에/를’ 격교체가 자주 일어나는 동사군을 태도 동사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우형식(1996)과 김미령(2004)이 태도 동사 구문으로 명명한 동사 구문의 예를 몇 문장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16) a. 철수는 선생님의 말씀에/을 항상 순종한다.
 b. 신하들은 왕의 말에/을 복종해야 한다.
 c.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을 따랐다.
 d. 신도들은 교주의 지시에/를 무조건 맹종했다.
 e. 그는 젊어서 니체의 사상에/을 추종했다.

(김미령, 2004, p. 170)

4) 한국어 동사 구문에서 주격과 처소격/여격 간의 격 교체는 흥미있는 현상이지만 본고의 주제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5) Kim(1990)에 의하면 위 예문의 동사들은 [+agentive]의 의미 속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대격을 면허하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동사의 대격 면허 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는 이종근(2000)에 잘 요약되어 있다.

위 예문들에서는 ‘-에/를’ 격교체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 동사들도 앞에 오는 명사구에 따라서는 ‘-에/를’ 격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김미령의 연구는 다음 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다.

- (17) a. 그는 장마철 농작물 관리에/*를 각별히 유의했다.
 b. 그들은 이번 공사에/*를 특별히 유의했다.
 c. 임산부는 약물 복용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d. 그녀는 이번 축제 행사*에/를 준비했다.
 e. 그는 그녀를 위해 멋진 생일 파티*에/를 준비했다.

(김미령, 2004, p. 172)

김미령은 이러한 예문들에 대해 “... ‘유의하다, 주의하다’는 자동적 쓰임이, ‘준비하다’는 타동적 쓰임이 근간”이라고 말하고, “... 명사구의 의미적 속성에 따라 자동에서 타동으로, 타동에서 자동으로 그 쓰임이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⁶⁾

그러나 그의 이런 주장은 ‘-에/를’ 격교체가 설명해야 되는 대상인 경우에는 순환성(circularity)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처소격이 가능한 명사구에 어떤 경우에 대격과의 격교체가 가능한가를 설명하기 위해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격교체에 대한 설명을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전환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에/를’ 격교체에 대한 논의가 좀더 진전되려면 태도 동사의 경우 타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동사와 보충어(complement)가 어떤 통사의미적 특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조금이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타동사의 한 통사의미적 요건으로 주어와 보충어 사이에 원인(cause)과 피영향(affected)의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보충어가 증분의 대상(incremental

6) 한 익명의 심사자는 (17d)와 (17e)의 동사 ‘준비하다’에 대해 특별히 태도 동사라기보다 일반 타동사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준비하다’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일반 타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심적인 준비를 의미할 때는 내면적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미령(2004)의 태도 동사 분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데 (17d)와 (17e)의 동사 ‘준비하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준비하는 경우이므로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대로 일반 타동사에 가깝다고 본다.

theme)라든지 등의 요건을 제시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결과-상황 동사 구문에서의 ‘-에/를’ 격교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2.2.3. 결과-상황 동사 구문에서의 격교체

김미령은 “... 결과-상황 동사의 경우 일단 주어가 되는 명사구의 의미 속성은 행위주(agent)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결과를 겪게 되는 대상(theme)이라는 점이 다른 두 동사군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에/를’ 교체가 허용되는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8) a. 우리 집은 바다에/를 접해 있다.
 b. 우리 회사는 파산 위기에/를 직면했다.
- (19) a. 그녀는 면허 시험에/을 붙였다.
 b. 총알은 과녁의 중심에/을 적중했다.
- (20) a. 그녀는 결국 감기에/를 걸렸다.
 b. 아이들은 모두 비에/를 맞았다.

위 예문에서와 같이 ‘-에/를’ 교체가 가능한 명사구에 처소성 명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대상성 명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김미령은 분석했다. 그리고 김미령(2004, p. 173)은 “... 이동 동사나 태도 동사 구문에서는 주어로 반드시 [+animate]인 행위주가 온 반면 결과-상황 동사에서는 주어로 행위주가 오지 않고 [Theme(대상)]이 온다.”고 주장했다.

3. ‘-에/를’ 격교체에 대한 새로운 분석

본고에서는 김미령(2004)과 우형식(1996)의 연구에서 ‘-에/를’ 교체가 가능하다고 분류하는 세 가지 동사 구문의 특성을 찾아보고 이들의 동사 분류에 들어가지 않은 사역 동사 구문에서는 왜 ‘-에/를’ 교체가 가능한지 또한 알아보도록 한다.

한국어 이동 동사 구문, 태도 동사 구문, 결과-상황 동사 구문에서 ‘-에/를’ 격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가 의미적으로 중의적이거나 한국어에서의 대격 면허와 처소격

및 여격 면허에 관한 일반적인 통사의미적 제약과 일부 동사의 여격/처소격 면허의 수의성(optionality) 때문이라고 본고는 주장하고자 한다.

3.1. 이동 동사 구문의 분석

우선 이동 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에/를’ 격교체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한다. 동사가 의미적으로 다의적인 경우 ‘-에/를’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김미령(2004)의 연구에서도 이미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 (21) a. 철수가 미술관 앞에 가서 그녀를 기다렸다.
b. 그 포수가 눈이 오는 날인데도 사냥을 갔다.

여기서 동사 ‘가다’는 다의적이어서 보충어(complement)로 ‘미술관 앞’ 과 같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장소(도착점)를 취하기도 하고, 물리적인 장소와는 상관없는 ‘사냥’ 같은 대상(Theme)을 취하기도 한다. 그런데 ‘-에/를’ 교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사 ‘가다’의 보충어가 물리적인 장소로 해석될 수도 있고 대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경우이다. 이미 앞 절에서 인용한 바 있는 김미령의 예문들을 논의를 위해 다시 한 번 인용하도록 한다.

- (9) a. 철수가 학교에/를 간다.
b. 그녀는 오늘 부산에/을 갔다.
(10) a. 그는 내일 수련회에/를 간다.
b. 우리는 어제 시사회에/를 갔었다.
(11) a. 우리 둘은 이 부분에/*을 가서는 항상 의견이 맞지 않는다.
b. 그는 마지막에/*을 가서는 이 일을 포기했다.
(12) a. 그녀는 도서관 앞에/*을 가서 그를 기다렸다.
b. 그는 벤치 위에/*를 가서 앉았다.
(13) a. 그는 오늘 밤 그녀와 영화구경*에/을 간다.
b. 그는 매주 등산*에/을 간다.

위 예문들 중에서 예문 (11)과 (12)의 ‘가다’는 물리적 장소(도착점)를 보충어로 취하기 때문에 처소격만 허용하고, 예문 (13)에 나타나는 ‘가다’는 물리적 장소와는 관계없는 대상(Theme)이기 때문에 대격만 허용한다.⁷⁾ 그런

데 예문 (9)와 (10)에서는 동사 ‘가다’의 보충어로 나타나는 ‘학교’나 ‘수련회’가 물리적 장소로도 해석될 수 있고 사냥과 같은 대상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를’ 격교체가 가능한 것이다.⁸⁾

이러한 분석은 동사 ‘가다’와 관련한 ‘-에/를’ 격교체뿐만 아니라 ‘다니다’ 등 다른 이동 동사 구문에서의 ‘-에/를’ 격교체에도 적용된다.⁹⁾

3.2. 태도 동사 구문의 분석

다음은 태도 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에/를’ 격교체에 대해 좀더 자세히 논의해보도록 한다. 김미령(2004)에서는 태도 동사의 대부분은 한자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태도 동사에 한자어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한자어로 구성된 태도 동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태도 동사들이 경동사 ‘하’와 결합된 동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합된 경동사 구문은 왜 ‘-에/를’ 격교체를 빈번히 허용하는 것일까?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다음 태도 동사 구문을 예로 들도록 한다.

- (22) a. 우리는 항상 전쟁에/을 대비해야 한다.
 b. 그는 이번 입시에/를 철저히 준비했다.
- (23) a. 겨울철에는 항상 건강에/을 유의해야 한다.
 b. 환절기에는 항상 감기에/를 주의해야 한다.

7) 이동 동사 구문에서 물리적 장소라고 하는 것은 도착점 및 지향점을 말하고, ‘많다’ 등 상태 술어의 경우에는 상태에 처해 있는 지점을 말한다. 그러므로 ‘걷다’ 등 활동의 장소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소 명사에 ‘-에’가 아닌 ‘-에서’가 나타나며, 장소와 관련해서 이탈점이나 근원 및 출처(source)를 표시할 경우에는 명사에 ‘-(으)로부터’가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 이동 동사와 관련하여 물리적 장소라고 언급할 때는 이런 격조사에 대한 용법을 제외한 도착점 및 지향점과 관련된 처소(location)라는 것을 밝혀둔다.

8) 예문 (9b)에 나타나는 ‘부산’의 경우 얼핏 보아 물리적 장소의 의미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역 사회나 행정 단위의 의미도 있으므로 ‘-에/를’ 격교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물리적 장소의 속성이 강하고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속성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초점화의 필요성이 강하면 ‘-에/를’ 격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9)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에/를’ 격교체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격교체가 아니라 동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상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고희주(2003)도 격교체 현상은 단지 겉으로 격이 교체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 바 있다.

- (24) a. 그는 영문학과에/를 지망했다.
- b. 그는 해군에/을 지원했다. (김미령, 2004, p. 182)

위의 경동사 구문에서 경동사 ‘하’는 잘 알려진 것처럼 술어 명사구에 대격을 면허할 수 있다. 그래서 (22)~(24)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 (25) a.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비를 해야 한다.
- b. 그는 이번 입시에 철저히 준비를 했다.
- (26) a. 겨울철에는 항상 건강에 유의를 해야 한다.
- b. 환절기에는 항상 감기에 주의를 해야 한다.
- (27) a. 그는 영문학과에 지망을 했다.
- b. 그는 해군에 지원을 했다.

위 예문들에서 경동사 ‘하’는 술어 명사에 대격을 면허한다. 경동사의 대격 면허 능력에 대해서는 일본어 경동사에 대한 Grimshaw & Mester (1988)의 연구 이후 한국어 경동사 구문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한국어에서도 경동사가 대격을 면허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는 Yoon(1991) 등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경동사 ‘하’가 술어 명사구에 대격을 면허하는 경우 (25)~(27)에서 보는 것처럼 술어 명사 앞에 나타나는 보충어에는 일반적으로 처소격이 나타난다. Kuno(1973) 등이 지적하는 것처럼 일본어에는 “이중 대격 제약(Double-o Constraint)”이라는 대격과 관련된 제약이 있다. 한 절에 두 개의 대격 표지는 올 수 없다는 제약이다. 대다수의 연구자는 한국어에서는 일본어의 이중 대격 제약과 같은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대격 중출에 대해 연구해 왔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8) a. 영희는 철수를 팔을 비틀었다.
- b. 그 학생이 실수로 대추를 씨를 먹었다.
- c. 아빠는 두 살배기 아들을 책을 주었다.

이러한 격중출에 대해 Yoon(1990), Lee(1994) 등 많은 연구자는 격중출은 초점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경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처소격에 대해서는 이동 동사의 경우에는 다르게 어떤 물리적인 장소나 도착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25b)에서 '입시'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 또는 도착점이라고 할 수 없다. 이희승(1949)은 조사 '-에'를 처소격, 향진격, 원인격, 열거격 등 4가지 격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는 조사 '-에'가 꼭 처소(지점, 도착점)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경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에'가 장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에'는 어떤 '영역'을 말해주기 때문에 장소와 은유적으로 관련이 있다. Hong(1991)과 최인철(2004)은 동사의 의미내용(semantic content)에 있어서 'location'을 포함할 때 여격(처소격)이 면허된다고 주장하고, 최인철(2004)은 이 때 location은 은유적인 장소로 확대되어 사용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위 경동사 구문에서 '-에'가 붙는 경우도 물리적인 location은 아니지만 '영역'이라는 은유적 장소로 볼 수 있다.

경동사 구문에서 이렇게 은유적 장소로까지 처소격 '-에'가 확대 적용되는 것은 이중 대격 제약(Double-o Constraint)과 유사한 제약이 한국어 문어체에서 적어도 초점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면허되는 처소격 '-에'는 처소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경동사가 술어 명사구와 결합하여 타동성이 있는 복합 술어를 형성하여 하나의 새로운 복합 동사로 재해석될 경우 처소격 대신 대격을 면허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22)~(24)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경우 복합 술어 내에서 술어 명사에는 대격 표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나의 새로운 동사의 일부로 행동한다.

(25)~(27)의 경동사 구문에서 술어 명사와 결합한 경동사는 Grimshaw & Mester(1988)가 주장하는 논항 전이(argument transfer) 등과 같은 과정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술어를 형성하여 논항(들)을 취한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술어는 '준비하다, 대비하다' 등과 같이 타동성 동사인 경우 대격 면허 능력을 갖는다.¹⁰⁾ 여기서 술어가 타동성 동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10) '우리는 항상 전쟁을 대비를 해야 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전쟁'과 '대비'에 다 같이 대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대격중출에 대해서는 Yoon(1991)을 참조하기 바란다. Yoon(1991)이 제안하는 대격 면허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경동사 '하다'는 술어 명사에 대격을 면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대격을 면허 받은 명사가 술어 명사와 같이 논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의미적으로 미방출(unsaturated semantically)인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 경동사와 술어 명사가 'theta-identific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복합술어(complex predicate)를 형성하여 복합술어의 논항에 'theta-mark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의미역을 할당하고 그 복

Dowty(1991)는 논항 선택과 관련하여 기존의 의미역을 대신하여 Agent Proto-Role과 Patient Proto-Role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Dowty의 Proto-Role을 이용하여 타동성 동사를 가려내는 방법을 제시하면 적어도 주어가 Agent Proto-Role의 의미 속성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고, 보충어(complement)는 Patient Proto-Role의 의미 속성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을 때 그 동사를 타동성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Dowty의 Agent Proto-Role의 의미 속성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29) Contributing properties for the Agent Proto-Role
- a. volitional involvement in the event or state
 - b. sentience (and/or perception)
 - c. causing an event or change of state in another participant
 - d. movement (relative to the position of another participant)
 - (e. exists independently of the event named by the verb)

또한 그의 Patient Proto-Role의 의미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0) Contributing properties of the Patient Proto-Role
- a. undergoes change of state
 - b. incremental theme
 - c. causally affected by another participant
 - d. stationary relative to movement of another participant
 - (e.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of the event, or not at all)

그리고 어떤 동사에 대해 타동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동사 ‘먹다’, ‘때리다’ 등과 같이 주어가 Agent Proto-Role의 의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보충어(complement)는 Patient Proto-Role의 의미 속성을 많이 갖고 있을 때라고 볼 수 있다.

‘준비하다, 대비하다’의 주어가 Agent Proto-Role의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고, 보충어도 위에서 나열한 Patient Proto-Role의 의미 속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동사들은 타동성 동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 예문에서처럼 ‘-에/를’ 격교체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 동사의 경우도 있다.

합술어의 논항인 명사구에 대격을 면허한다는 분석을 제시한 바 있다.

- (31) a. 그는 부모님의 뜻*에/을 어겼다.
- b. 아버지는 그녀의 행동*에/을 꾸짖었다.
- c. 어머니는 그녀의 행동*에/을 조용히 나무랐다.

(김미령, 2004)

위의 예문에 나오는 태도 동사들은 경동사와는 관련이 없는 태도 동사들로서 보충어(complement)들에 대격만 면허한다. 이 동사들의 타동성은 의미가 비슷한 영어 동사 disobey, scold, rebuke도 타동사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타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유적으로 확대된 location의 의미도 없고, 경동사 구문에서처럼 은유적으로 처소격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대격만 허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류의 태도 동사 외에도 ‘-에/를’ 격교체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 동사가 또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2) a. 정부는 이번 수해 대책 마련에/*을 골몰하고 있다.
- b. 나는 그녀의 말에/*을 동감한다.
- c. 그는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를 항변했다.

(김미령, 2004)

위의 태도 동사들은 술어 명사와 결합하여 경동사 구문을 형성하고 있는데 보충어(complement)들이 은유적으로 확대된 location의 의미, 즉 관심의 영역과 관련이 있어서 처소격을 면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동사들이 대격은 면허하지 못하는데 동사 ‘동감하다’는 ‘남과 같이 생각하거나 느낌을 갖는다’ 또는 ‘같은 것을 느낀다’는 의미로 한자어 내부에서 이미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갖고 있는 의미역을 방출(saturation)하였으므로 대격을 면허할 수 없다. ‘신문을 구독하다’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책을 독서한다’는 표현은 불가능한 것도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구독’에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독서’에는 책(書)이라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한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대격 능력을 갖지 못한다. ‘골몰하다, 항변하다’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태도 동사 구문에서의 ‘-에/를’ 격교체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정리하면 태도 동사 구문에서의 격교체는 동사의 의미 속성과 타동성, 처소격 ‘-에’의 의미, 경동사의 격 면허 방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에/을’ 격교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겠다.

3.3. 결과-상황 동사 구문의 분석

우형식(1996)과 김미령(2004)이 ‘-에/를’ 격교체를 허용하는 동사로 분류한 결과-상황 동사는 대부분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은유적으로 의미가 확대된 장소와 관련이 있다. 먼저 김미령(2004, p. 186)이 제시한 결과-상황 동사 구문의 예를 인용해 보도록 한다.

- (33) a. 우리 마을은 강가에/를 못 미쳐 있다.
 b. 우리 회사는 파산 위기에/를 직면했다.
 c. 그녀의 자리는 방 출구에/를 접해 있다.
 d. 그의 재능은 아버지의 재능에/을 앞섰다.
- (34) a. 그녀는 면허 시험에/을 붙었다.
 b. 총알은 과녁의 중심에/을 적중했다.
 c. 우리가 이번 시험에/을 이겼다.
 d. 그녀는 취직 시험에/을 두 번 떨어졌다.

위 (33)의 예문에서 제시된 동사들에 대해 김미령은 “대상이 ‘어떠한 구체적 또는 추상적 공간으로부터의 거리나 주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황이 강조”된다고 지적하고, (34)에 제시된 동사들에 대해서는 결과가 강조되고 동사의 의미상 “어떤 목적이나 기준에 다다른거나 성취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33)와 (34)의 예문에서 보충어(complement)에 가능하다고 김미령이 판단한 대격은 필자의 문법성 판단으로는 (33d)와 (34c)를 제외하고는 비문이거나 비문에 가깝다. 이러한 결과-상황 동사 구문에서 처소격 ‘-에’가 가능한 것은 그 보충어(complement)들이 물리적 또는 은유적으로 확대된 처소(location)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본다. 예문 (33d)에서 ‘-에/을’ 격교체가 가능한 것은 ‘앞서다’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능가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능가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타동사로서 대상(Theme)을 목적어로 취하며 대격을 면허한다. 이 경우에는 보충어(complement)에 처소의 의미가 없고, 동사도 처소의 의미가 없다. ‘먼저 앞으로 나아가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자동사로서 ‘-에’가 비교 영역을 나타내므로 location이 은유적으로 확대된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동사는 보충어에 처소격 ‘-에’를 면허할 수 있다.

그리고 동사 ‘이기다’의 경우는 어휘 개념 구조가 자동사로서 보충어가 없어도 명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는 논항이 아닌 수식어로 보인다. ‘이번 시험에’의 논항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문장을 보자.

- (35) a. 우리가 이번 시험에 이겼다.
 b.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이겼다.
 (36) a. 그녀는 면허 시험에 붙었다.
 b. *그녀는 면허 시험에서 붙었다.

문장 (36b)가 비문법적이거나 아주 어색한 문장이 되는 반면에 (35b)의 문장은 완벽하게 들리는 것은 (35a)의 ‘이번 시험에’가 논항이 아닌 부가어(adjunct)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문 (33)와 (34)에 대한 문법성 판단이 화자에 따라 다르다면 이는 처소격 면허와 대격 면허에 대한 조건이 화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나 동사의 의미가 개인 방언(idiolect)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의 문법성 판단을 기준해서 말하면 물리적 처소의 의미가 강한 (33a,b,c)와 (34a,b,d)의 경우 대격은 면허될 수 없으며, 이 점은 예문 (15)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화자의 경우 처소의 의미가 강한 경우에도 결과-상황 동사 구문의 경우 처소격은 물론 대격도 면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 사역 동사 구문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세 가지 동사 구문 외에 대격 ‘-을’과 격교체를 허용하는 다른 동사 구문이 있다. 필자가 홍재성 외 9인 공저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을 검색해서 발견한 예문 (7)을 다시 한 번 인용한다.

- (37) a. 그는 상관한테 육을 먹으면 하급자에게/를 못살게 군다.
 b. 선생님의 지시대로 반장이 지각한 아이들에게/을 청소를 시켰다.
 c. 부모님께/을 육을 먹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 예문은 모두 사역 동사 구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서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여격 ‘-에게(께)’대신 처소격 ‘-에’가 오는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관찰된다.

사역동사가 주어 논항을 제외하고 1개 논항을 취할 때는 그 내부 논항에 대격 또는 여격을 면허하고, 2개 논항을 취할 때는 여격/처소격과 대격을 면허한다. 위 (37b,c)의 예문에서 ‘-에/를’ 격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여격/처소격을 면허 받는 논항이 초점을 받을 때인데 이렇게 해서 초점을 받는 논항이 대격을 받으면 대격중출 문장이 된다. 이러한 격중출에 대해 Yoon(1990), Lee(1994) 등 많은 연구자는 일찍이 격중출은 초점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렇다고 초점을 받는 명사구가 항상 ‘-에(게)/를’ 격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8) a. 사고로 3명의 광부가 갱도 속에/*을 간헐다.
 b. 실이 실패에/*를 잘 감기지 않는다.
 (39) a. 독재자는 힘없는 사람들에게/*을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
 b. 일단 선생님께/*을 양해를 구하도록 하시오.
 (40) a. 서쪽 하늘에/*을 혜성이 나타났다.
 b. 정혜는 차가운 시내물에/*을 발을 담근다.

위 예문 (38)에서 보는 것처럼 수동문에서는 아무리 초점이 주어지더라도 대격이 면허되지 않는다. 이는 변형생성문법 초기부터 널리 알려진 사항이다. 예문 (3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논항(argument)이 아니고 부가어(adjunct)인 경우는 ‘-에(게)/를’ 격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예문 (15)를 통해서 관찰한 것처럼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에(게)/를’ 격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동 동사 구문에서는 왜 ‘-에/를’ 격교체가 가능할까? 사역 동사는 Dowty의 동사와 논항의 의미 속성을 고려할 때 타동성이 강한 동사이다. 그리고 이 경우 ‘-에/를’ 격교체가 가능한 논항도 영향을 받는(causally affected) 요소이며 그것도 영향성을 강하게 받는 논항이다. 강명운(1999)은 중목적격 구문에는 영향성제약(affectedness constraint)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향성(affectedness)이 대격중출에 제약을 가하는 예로 강명운(1999)은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 (41) a. 철수가 순이를 팔을 잡았다.
 b. 철수가 순이를 가슴을 때렸다.
 (42) a. *철수가 순이를 팔을 보았다.
 b. *철수가 순이를 팔을 좋아한다.

(41)의 예문에 나오는 동사들은 그것이 향하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동사들이지만, (42)의 예문에 나오는 동사들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사들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역동사 구문에 ‘-에(게)/를’ 격교체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사역동사들이 영향성이 강한 동사들이고 그래서 그 내부 논항이 Patient Proto-Role의 의미 속성을 다수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한다. 기술적으로는 어휘적인 여격/처소격과 문법격(grammatical case)인 대격의 교체가 가능한 것은 Smith(1992)의 주장을 따라 동사에 따라 어휘적인 여격/처소격이 수의적(optional)으로 면허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은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여동사 구문에서의 ‘-에(게)/를’ 교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43) 철수가 영희에게/를 책을 주었다.

동사 ‘주다’가 간접목적어에 여격/처소격을 수의적으로 면허하여 어휘적인 여격/처소격이 면허될 수도 있고, 어휘적인 대격/처소격이 면허되지 않으면 다른 일반적인 격면허 방법에 따라 대격이 면허된다.¹¹⁾

4. 결론

본 논문은 처소격 ‘-에’ 또는 여격 ‘-에게(께)’를 허용하는 동사들 중에서 어떤 동사들이 대격 ‘-을’과 격교체를 허용하고 어떤 동사들이 대격과 격교체를 허용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대격 면허 능력이 있는 동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 격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에/를’ 격교체가 일어나는

11) 이 경우 대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면허되는가에 대해서는 Kim(1990), Lee(1994) 등을 참조하시오. 참고로 Lee(1994)의 논항 구조 기반 구조적 면허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a. 어휘부에서 여격/처서격 등 어휘격을 우선 명시한다.
- b. 동사의 논항 순위에서 가장 높은 논항이 아닌 논항(들)에 대격을 할당한다.
- c. 동사나 형용사의 다른 모든 나머지 논항에 주격을 할당한다.

Lee(1994)의 격할당 방법에 의하면 수여동사의 경우 논항이 3개인데 주어가 아닌 나머지 논항 명사구들에는 어휘적이 우선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명사구 둘 다 대격이 할당된다.

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사를 분류하고 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고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이동 동사 구문, 태도 동사 구문, 결과-상황 동사 구문에서 '-에/를' 격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사 구문에 나타나는 동사가 의미적으로 중의적이거나 한국어에서의 대격 면허와 처소격 및 여격 면허에 관한 일반적인 통사의미적 제약과 일부 동사의 여격/처소격 면허의 수의성(optionality) 때문이라고 본고는 주장하였다.

'-에(게)/를' 격교체가 일어나는 것은 이동 동사처럼 동사의 의미가 중의적이 아닌 경우에, 특히 대격중출의 경우에 초점화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초점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를' 격교체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격교체가 여격/처소격과 대격에 관한 일반적인 통사의미적 조건이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강명윤. (1999). 국어의 중목적격 구문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한국어학*, 10, 67-91.
- 고광주. (2003). 국어의 격교체구문 연구. *한국어학*, 18, 389-408.
- 김미령. (2004). 격교체 양상에 따른 동사 분류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25, 161-190.
- 우형식. (1996). *국어의 타동사 구문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이종근. (2000). 술어의 통사의미 자질과 대격. *언어학*, 8(3), 183-202.
- 이희승. (1949). *초급 국어 문법*. 서울: 박문서관.
- 최인철. (2004). Dative Selection, Case Alternations and Case Stacking in Korean, *현대문법연구*, 37, 13-179.
- 한송화. (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홍재성 외 9인. (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서울: 두산동아.
- Dowty, 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547-619.
- Grimshaw, J. & A. Mester. (1988). Light Verbs and θ -Marking. *Linguistic Inquiry*, 19, 205-232.
- Hong, K. S. (1991). *Argument Selection and Case Marking i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Kim, Y. J.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 Kuno, S. (1973).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 Lee, J. K. (1994). *The Syntax and Pragmatics of Korean C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 Rosen, S. (1989). *Argument Structure and Complex Predic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andeis University.
- Smith, H. E. (1992). *Restrictiveness in Case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Yoon, J. H. S. (1991). Theta Operations and the Syntax of Multiple Complement Constructions in Korean. I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IV*.
- Yoon, J. Y. (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bar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이종근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목포대학교 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전화: (061)450-2124

이메일: jklee@mokpo.ac.kr

Received: 30 Dec, 2005

Revised: 15 Mar, 2006

Accepted: 17 Mar, 2006